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

이 예 영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Mysticism in the Twentieth Century Decadent Fashion

Yhe-Young Lee · Minja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6. 28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mysticism' in fashion which is recently marked a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 emerging at the end of the century. First of all, the concept of 'mysticism' and 'occultism' are reviewed to define the mysticism in fashion. Mysticism, as a cultural phenomenon, is also examined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With these theoretical basis,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in 1990s from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which reported cultural phenomenon related to mysticism, are analyzed and categorized. Finally, these categories are applied to fashion phenomenon and 'mysticism in fashion' is analyzed and clearly examined as a fashion trend.

As a result, mysticism in fashion that has arose as an end of the century phenomenon within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could be categorized into five groups such as 'primitive religion', 'Christianity', 'oriental philosophy', 'universe' and 'magic and witchcraft'.

Key words: mysticism fashion, religion, oriental philosophy, universe, magic and witchcraft;

신비주의 패션, 종교, 동양사상, 우주, 마술과 마법

I. 서 론

최근 잡지나 신문 보도를 통해 신비주의와 관련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이비 종교 단체의 집단 자살 사건에서부터 선과 기(氣) 수련 인구의 증가, 우주와 외계인에 대한 광신적 믿음에 이르는 다양한 현상들이 신비주의 문화현상으로 구분되고 있다.¹⁾ 그러나 신비주의로 언급된 문화현상들 안에서 공통 인자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마치 '신비'하고 '환상'적인 것들은 모두 신비주의로 분류되

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또한 최근 세기말적 패션으로서의 신비주의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종교적 모티프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만을 신비주의 패션이라 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신비주의로 다루어지는 여타 문화현상의 특성과 비교해 볼 때 신비주의 패션에는 편협한 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세기말적 문화현상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신비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패션에 적용하여 신비주의 패션을 보다 폭넓게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신비주의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고 문화현상으로서의 신비주의를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고찰할 것이다. 또한 신비주의란 개념으로 묶인 문화현상들을 대표적인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이를 패션에 적용하여 패션에서의 신비주의의 조형성과 미적 가치를 문화론이나 예술사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비주의와 신비술의 일반적 개념과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문화현상으로서의 신비주의의 역사적·사회적 형성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비주의 관련 서적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신비주의 문화현상의 특성은 1990년 이후 발행된 국내 각종 일간지와 국내 패션 잡지인 Elle, Marie Claire, Bazaar, Esquire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될 것이며, 고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적 특성에 따라 범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세기말적 신비주의의 특성은 패션 및 예술 관련 서적과 논문을 기초로 한 이론적 연구와 잡지 기사 및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고찰될 것이다. 실증적 연구에는 국내 잡지인 Elle, Marie Claire, Vogue, Fashion Today의 기사 내용과 Collezioni, Vogue Italia, L'Official Paris, Vogue Korea, Fashion Today, 패션 아트전 도록의 사진이 이용될 것이다.

II. 신비주의에 관한 고찰

1. 신비주의(mysticism)와 신비술(occultism)의 일반적 개념

신비주의 문화현상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신비주의로 혼용 지칭되고 있는 '미스티시즘(mysticism)'과 '오컬티즘(occultism)'을 종종 접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스티시즘과 오컬티즘의 개념적 고찰을 통해 문화현상으로서의 신비주의를 정의하고자 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미스티시즘은 '신비주의'로, 오컬티즘은 '신비술'로 구분하고자 한다³⁾.

1) 신비주의

① 신비주의의 개념

신비주의(mysticism)는 그 어원을 눈이나 입을 닫는다는 뜻의 그리스어 *mystikos*에 두고 있다. 그 의미를 사전⁴⁾에서 찾아보면 '신비주의자들(mystics)의 교의나 신념; 특히 묵상을 통해 절대자(God)와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믿는 교의', '명상을 통해 영적인 진리의 직관적인 지식(knowledge)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교의', '막연하고 모호한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신념'이란 세 가지 의미로 풀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의미를,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단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한 백과사전에서 신비주의는 신(神)이나 절대자 등 궁극적(究極的) 실재와의 직접적이고 내면적인 일치의 체험을 중시하는 철학이나 종교 사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⁵⁾ 이러한 신비체험에서 지상의 구체 가치를 찾는 종교의 체계 또는 형태로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⁶⁾.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사전에서의 첫 번째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신비주의를 종교와 연관지어 정의한 것이다. 반면 브리태니커⁷⁾에는 신비주의가 일반적으로 감춰진 진리나 지혜를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서 신(神) 또는 신성한 존재(초월적인 영역)와 합일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정의함으로써 사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② 신비체험

신비체험은 문화, 시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신비체험은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모든 것의 궁극적이고도 무감각한 통일, 즉 하나 혹은 일자(一者)에 대한 이해가 그 체험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⁸⁾.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신비체험의 특징을 네 가지로 들고 있다⁹⁾. 첫번째가 바로 '형언 불가능성(Ineffability)'으로 신비체험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두번째는 '이성 인식적 특징(Noetic quality)'으로 신비체험이 진리의 깊이를 통찰하는 상태임을 말한다. 세번째는 '일시성(Transiency)'으로 신비적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특징은 '수동성(Passivity)'으로 신비체험자는 자신의 의지

가 정지되고 마치 좀더 우월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③ 신비주의와 종교

신비주의는 종종 종교적인 신비주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신비주의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양자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래스키(M. Laski)와 재너(R. C. Zaehner)는 공저인 『성스러운 신비주의와 세속적인 신비주의(Mysticism Sacred and Profane)』에서 신비주의를 크게 종교적 신비주의와 세속적 신비주의로 조심스럽게 구분하고 있는데, 후자는 자연적인 신비주의로서 여기에 속하는 심미적 경험, 사랑과 자녀 출산 경험, 자기 변화 과정 등의 신비체험은 종교적 신비체험의 과정과 병렬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엘우드(R. S. Ellwood)는 말한다¹⁰⁾. 따라서 래스키와 재너의 세속적 신비주의나 엘우드의 자연적 신비주의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신비주의의 개념에 포함된다 하겠다.

또한, 스테이스는 신비체험 자체는 전혀 종교체험이 아니며 그것이 종교와 맺는 관계가 후속적이고 우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비체험은 어떠한 종교적 의복을 걸치지 않고도 적나라하게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체험자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각각의 다른 종교적 체험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신비주의의 상당 부분은 종교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2) 신비술

① 신비술의 개념

신비술(occultism)의 occult는 '숨겨졌다'는 뜻의 라틴어 occultus에서 온 것으로, 그 사전¹²⁾적 의미는 '신비스러운 힘이나 권능에 대한 신념' 또는 '비술에의 몰입'이란 두 가지로 풀이되어 있다.

또한 Britannica에서는 신비술을 '초자연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한 믿음·지식·관행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론과 실천의 체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신비술의 두 가지 사전적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비술은 주로 마술 또는 점술의 형태로 나타나며,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

회에서 발견되고 있다. 신비술은 시술자 자신 또는 그의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어떤 인류학자들은 마술과 종교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② 신비술의 종류

여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비술을 브리태니커¹³⁾의 분류에 따라 연금술, 점성술(astrology), 점술(divination), 마술(magic), 마법(witchcraft)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연금술은 천상과 지상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창조자의 의지를 대변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연금술은 '변환(transmutation)'을 키워드로 하는데, 여기서 변환은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변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늙음에서 젊음으로, 지상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술은 자연히 부·장수·불사(不死)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광물과 행성 및 금속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행성의 움직임의 관찰을 바탕으로 한 적합한 연금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점술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바로 과학 또는 의사과학(pseudoscience)인 점성술이다. 점성술은 천체(天體)의 운행이 지상의 4대 물질 요소인 불·공기·물·흙의 생성과 소멸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점성술은 행성, 태양 및 달의 관찰과 해석을 통해 지상과 인간사의 사건을 예견한다.

마술은 많은 종교적 시스템의 핵심인 정교한 의식에 대한 믿음과 습속으로부터 오락을 위한 행위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해당된다.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종교에는 신도들이 있으나 마술에는 고객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종교와 마술적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대 인류학자들은 마술과 마법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계적이고 행동적인 방법을 통해 외적인 힘을 조작하는 것으로, 후자는 같은 목적을 위해 타고난 개인적 재량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을 통해 신비주의와 신비술을 재정의해 보면, 신비주의란 좁은 의미에서 초월적인 존재와의 합일을 통해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신비체험의 과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확실한 것이나 영적 진리 자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신비주의는 좀더 넓은 의미에서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2. 문화현상으로서의 신비주의

1) 역사적 배경

르네상스 이후 널리 퍼진 계몽주의 사상은 인류에게 진보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다 주었다. 즉,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발견된 자연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세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사고 경향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약 100년간 서구 사회에는 전쟁이 없었고 평화는 과학 기술 및 의학의 발달을 가능케 했다. 그 결과물들은 '행복'에 대한 계몽주의의 희망이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에 더욱 확신을 준 것이다¹⁴⁾.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계몽주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사고는 비합리주의(nonrationalism)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비합리적 사고 중의 하나가 낭만주의다. 수많은 창조적 예술가들은 기계화된 세계 속에서 소외를 경험했고 결국 이성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게 되었다.

또한, 계몽주의 세계관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세계의 변화 과정을 전제로 하는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의 도전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자연 현상과는 별도로 독립해서 자연 현상에 대하여 목적성을 가지고 작용한다는 합리주의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와해시켰다.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그의 저작들을 통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확신시켜 주었다. 그는 비록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인간

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¹⁵⁾.

결국 계몽주의의 사회적 진보에 대한 낙관적 희망은 이러한 비합리주의 사조의 흐름과 20세기 들어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시발로 계속된 전쟁,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핵무기에 의한 대량 살상 등의 역사적 대사건들에 의해 좌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한 믿음, 즉 신비주의다.

2) 사회적 배경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의 확산이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주체성과 영적 삶에 대한 책임이 증가했고 이는 곧 신비주의 안에서 개인이 주체성을 발견하고 영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대는 또한 변화의 시대다. 기술과 사회적 혁신의 가속화는 개개인의 삶에 혼동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비주의는 절대 불변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 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또다른 현대 사회의 특징은 합리적 실용주의다. 오늘날을 지배하는 최첨단 과학 시스템과 복잡한 관료적 사회 체계는 합리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소외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신비주의는 이러한 개인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사과학(擬似科學)으로서 현대인들에게 심리적 배출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대중매체와 교통의 발달은 전세계적인 문화의 상호 접촉을 촉진시켰다. 다양한 문화 안에서 많은 유사성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신비주의는 문화 간의 완충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 신비주의의 범주

1990년 이후 발행된 국내 일간지 및 잡지를 중심으로 신비주의 문화현상을 조사하여 대표적 특성에 따라 종교적 신비주의, 동양사상의 신비주의,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 마술과 마법의 신비주의의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종교적 신비주의

세기말적 불안감을 부추기는 '말세론' 또는 '종말

론'과 함께 등장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5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동경 지하철 독가스 테러 사건은 신비주의의 색채를 띤 사이비 종교 단체 '오움진리교(眞理教)'¹⁶⁾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1995년 이후 유럽 및 미국에서 일어난 사이비 종교 '태양사원(寺院)'의 자살 사건등이 그 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떠한 종교건 간에 내세 관념이나 육체와 영혼의 분리, 선과 악의 개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종교 안에서의 절대자 또는 초월적인 존재에 관한 신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이와 관련된 문화현상들 또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집트에 대한 문화적 관심의 고조가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열렸던 이집트 문명전의 성공적 전시와 이집트 관련 소설의 선풍적 인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2) 동양사상의 신비주의

넓은 의미에서 동양사상의 신비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종교적 신비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신비주의 문화현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종교나 사상에 대한 관심을 구분하여 '동양사상의 신비주의'란 이름으로 범주화하였다.

최근 서양에서는 과학적 물질 만능주의의 한계를 동양사상에 의한 영적 체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입에 따라 요가나 선, 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이미 80년대에 시작된 뉴에이지 운동은 동양적 신비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은행나무 침대', 드라마 '8월의 신부', 양귀자의 소설 '천년의 사랑', 가요로는 롤라의 '천년유애'와 윤종신의 '환생', 태평양의 라네즈 립스틱 '천상후애' 등이 환생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생에 대한 관심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쳐 '전생치료법'¹⁷⁾이라는 정신 요법이 등장하기까지 한다. 이밖에도 풍수지리, 음양오행에 대한 관심과 기공의 대중화는 동양사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3)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는 저 넓은 우주 공간 어딘

가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다. TV 드라마 시리즈로서 영화로까지 제작된 'X파일'은 온 세계에 불고 있는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 신드롬'과 맞물려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본래 X파일이란 외계인의 출몰, 4차원의 세계 등 미국 FBI의 통상적인 수사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린 미해결 사건들을 모아 분류 기호 'X'를 붙혀 폐쇄시킨 극비 문서철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우주와 관련된 영화로는 '맨 인 블랙', '제5원소', '콘택트' 등이 있으며, 우리 나라 PCS인 'LG사이언', '모토로라 디지털 마이크로텍 8000' 등의 광고가 있다.

4) 마술과 마법의 신비주의

최근 세기말적 문화현상의 하나로 마법과 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피하려는 군중 심리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점술가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일명 '야겔 디디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겔 디디에는 수정 구슬로 점을 치는 40대 미모의 여성 점술가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고 한다¹⁸⁾.

문학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환상적 리얼리즘' 또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장르가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장르의 소설들은 환상적이고 마술적인 요소를 현실적 이야기에 통합해 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직 미술사 파올로 코엘료는 연금술과 마술에 대한 그의 관심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대표작인 『연금술사』에 잘 나타나고 있다.

III. 패션에서의 신비주의

앞에서 살펴본 신비주의 문화현상의 범주를 패션에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종교적 신비주의 패션의 경우 그 확연한 특성에 의해 '원시종교의 신비주의'와 '기독교적 신비주의'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패션에서의 신비주의를 원시종교의 신비주의, 기독교의 신

비주의, 동양사상의 신비주의,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 마술과 마법의 신비주의의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원시종교의 신비주의 패션

원시 종교인 샤머니즘에서는 동식물, 종족, 조상 등 다양한 대상들과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다. 원시 예술품에는 동물의 털, 식물뿌리, 조상의 머리털 등 자연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자연물들의 직접적인 이식은 정령의 실존에 대한 염원으로서 커다란 힘을 갖는다. 얼굴 전체를 모피로 덮는 가면, 새의 깃털을 주로 사용한 머리 장식과 부채 등 예술에 첨가된 자연물은 원시인들의 신화(神話)에 근거한다¹⁹⁾. 이같은 원시 종교의 특성은 현대 패션에서도 차용되고 있으며 하지수²⁰⁾는 이를 원시주의 양식의 '자연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머리털, 깃털, 풀, 조개 등의 동·식물을 직접 부착한 원시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닉 또는 이콜로지 패



[그림 1] Tokubol Vol(Collezioni No. 38, pp. 275)

션의 한 예가 [그림 1]이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이집트는 복잡한 다신교적 종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신교 신앙은 주위의 상징적 자연물로 조형화되어 복식을 비롯한 모든 의장(意匠)에 사용되었다²¹⁾. 이러한 고

대 이집트의 종교적 신비주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는 최근 세기말적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John Galiano로 그의 '98 S/S 콜렉션은 투탕카멘묘를 재현한 무대에서 펼쳐졌다²²⁾. [그림 2]는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주름 스커트 위에 이집트 왕족의 남자들만이 착용할 수 있었던 셴도트(Shendot)²³⁾를 두르고 있는 John Galiano의 작품이다.



[그림 2] John Galiano(Collezioni No. 38, pp. 275)

2. 기독교의 신비주의 패션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징으로 풀이되었다. 사물이나 인간, 현재 혹은 과거의 사건은 다른 사물, 인간 그리고 사건의 상징으로 또는 개념과 관념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설(De Trinitate)』에 기원을 두고 있는 이러한 '보편 상징성(Universalsymbolik)' 이론은 "자연 전체가 신을 표현한다"고 한 파리의 성 빅토르 대성당 승원장인 위고(Hugo von St. Victor)에 의해 정립되었다. 성 보나벤투라는 창조된 아름다움이 영원의 표시이며 인간을 신에게 인도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플라톤주의의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은 상징적 그림을 경험함으로써 말보다는 그림으로 인해 어떠한 다른 더 높은 지식이 감상자에게 전달된다고 보았다. 감각에



[그림 3] Comme Des Garçons
(Collezioni No. 19, pp. 279)



[그림 4] Donna Karen
(Collezioni No. 35, pp. 265)



[그림 5] Alexander McQueen
(Collezioni No. 65, pp. 53)

의해 인식되는 그림은 육신적 세계를 넘어 정신적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수단이었다²⁹⁾. 이러한 신비 체험은 상징적 복식의 착용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김태연은 신중세론(New Medievalism)³⁰⁾의 관점에서 본 중세 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신비성을 들고 있다. 중세의 신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술 양식은 중세 모자이크로서 심오한 색채를 발산하며 교회당의 내부를 장엄하고도 화려하게 꾸며 주었다. 여기에 묘사된 이야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기적적이고 성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³¹⁾.

이러한 색채와 빛의 신비성은 중세 복식의 다채로운 색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위 성직자나 귀족 계급 등 중세시대의 상류층 복식에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부여했다³²⁾. 이러한 기독교적 신비성을 표현한 패션이 [그림 3]의 작품으로 화려한 색채와 빛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빛'을 통해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이너인 Paco Rabanne은 빛이 우리에게 투명함과 진리, 기쁨을 준다고 믿고 있다³³⁾.

또한 납이나 구

리 같은 비금속을 금이나 은 등으로 변환시키려고 시도했던 연금술은³⁴⁾ 예로부터 부·장수·불사를 보장해 준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신념은 중세까지 계속되어 종교적 신비성의 표현 수단으로서 금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금빛으로 표현된 작품들의 신비성과 고귀함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화려한 색채의 신비성은 '네오 히피(Neo Hippie)'의 사이키델릭 패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월남전에 대한 반전운동의 물결 속에 사랑과 평화를 구호로 외치며 등장한 히피들의 의복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이다. 히피들은 신비한 신앙지상주의자이며, 낭만적인 노우스티시즘(Gnosticism)³⁵⁾의 숭배자였다. 내적·정신적 초월성에 근원을 둔 히피는 현대문명의 물질만능주의와 실리주의에 대한 심한 갈등과 회의 속에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서 신비한 경험의 표현인 반(反)문화적 행위의 스타일을 통해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였다³⁶⁾.

중세 기독교 신앙에서 외관이나 육체는 모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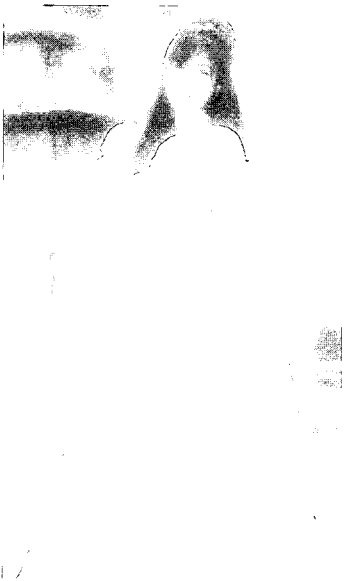
질과 마찬가지로 보기 싫고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여겨 경멸의 대상이었다³¹⁾. 이러한 사고에는 금욕적 삶을 통해서만이 신과의 정신적 교감이 용이해진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더러운 육체는 의복을 통해 은폐됨으로써 종교적 신성함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욕성은 몸 전체의 실루엣을 완전히 감추어 주며 장식적 요소가 철저히 배제된 성직자들과 17세기 청교도들의 복식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식은 1990년대 작품에도 영감을 주었다(그림 4)

전세계 모든 종교에는 천사와 악마의 개념이 있다. 천사와 악마는 모두 인간의 영혼 속의 선과 악 사이의 대결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은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에서 두드러지며 패션에도 표현되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특히나 음산하고 독특한 분위기의 컬렉션으로 유명하며 [그림 5], 1997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패션아트전의 주제는 '선과 악'이었다. 또한 '엔젤 치노'라는 상품을 선전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잠뱅이의 광고는 영혼의 위로를 위

한 '순수되찾기'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98 S/S 컬렉션에서는 John Galiano, Karl Lagerfeld 등이 얇고 투명한 소재를 이용한 고대 그리스의 자연미를 살린 디자인과 신고전주의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로 순결함과 자유로움을 천사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3. 동양사상의 신비주의 패션

일반 서양인들에게 동양은 신비의 나라였다. 그러나 19c 식민지 확장을 통한 동양과의 실질적 접촉은 근대 동양이 텍스트와 전혀 유사하지 않다는 실망을 안겨 주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유럽적 감수성에서 본 현실의 동양보다 더 나은 장소인 상상의 세계로 끝없이 되돌아갔다³²⁾. 그들은 동양의 표면적 특징만을 모방한 상상의 동양을 만들어 갔다. 따라서 서양인들은 동양 문명의 외형적인 특성에만 친숙해져 있었을 뿐 그 내적인 정신은 그들에게 여전히 기이하고 멀게만 느껴졌다³³⁾.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선(禪)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³⁴⁾ 최근 불교 신자 수가 늘어나는 등 동



[그림 6] 영화 '은행나무 침대'의 미단 공주 의상(Fashion Today, 1996년 4월호, pp. 88)



[그림 7] Versace (Vogue Korea, 1998년 9월호, pp. 37)



[그림 8] Istante (Collezioni No. 41, pp. 221)

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서구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던 동양에서도 본래 동양 사상으로서의 회귀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동양사상 중 하나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다양성에 대한 모든 상대적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통일 의식'이다. 이러한 신비체험은 죽음을 초월한 것으로 그 의식의 흐름은 윤회를 통해 지속된다³⁶⁾. 불교의 환생설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을 영화화한 '은행나무 침대'에서 미단공주의 의상은 아이보리 계열의 노방, 소창 가제를 소재³⁷⁾로 죽음을 초월한 신비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6].

선은 불교의 한 종파로 달마대사에 의해 중국에서 태동한다. 선은 중국의 정신적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도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노자의 사상에 기초한 도교(道敎)³⁸⁾ 사상은 물 흐르듯 자발적으로 기능하는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³⁹⁾. 또한, 선은 우주란 하나이며 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라고 믿고 있으며, 개개인이 더욱 명백한 개개인이 될 때 각자가 이 전체와의 관련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믿는다⁴⁰⁾.

선은 패션에서 형식의 완전성과 규정성의 부정, 즉 형식의 초월로 나타난다. 이는 형식의 완전성이나 규정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형식으로 향하게 하기 쉽고, 내부의 진리로는 향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선사상에 바탕을 둔 순수로의 회귀가 큰 이슈 중의 하나였던, '98 S/S 컬렉션에서 Issey Miyake는 실과 바늘 없이 천을 몸에 둘둘 감는 의상을 발표했으며 Comme Des Garçons는 울풀림, 마무리하지 않은 험라인, 염색되지 않은 무명의 사용, 천을 여러겹 겹친 스커트 등을 통해 균형 파괴의 미학을 표현해냈다. 또한 Helmut Lang은 회계 표백한 모시 플리츠 스커트의 허리부분을 가공하지 않은 실로 둘둘 감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98 F/W 컬렉션으로 이어져 서구적 복식 형식에 충실했던 Calvin Klein, Jil Sander, Ann Demeulemeester 등도 이러한 해체, 재구성의 작업에 동참하였다⁴¹⁾.

4.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 패션

인류 역사상 고대 이집트로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에 의하면 기독교의 교리와 그보다 앞섰던 유대교의 교리까지도 항상 영적인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원시 자연 과학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포스닉(Harry Emerson Fosdick : 1878~1969) 목사의 성경 속의 우주관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평평한 지구는 물위에 떠 있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으며 하늘은 마치도 대접을 얹어놓은 듯한 지구의 덮개다. 이런 둥근 천정의 바깥쪽을 기둥들이 받치고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은 이러한 하늘 속에서 움직이며 하늘 위에는 바다가 있어 천상의 창문을 통해 비가 내린다고 한다⁴²⁾. 기독교의 이러한 우주관의 영향때문인지 우주론은 종종 드넓은 미지의 바다와 연관되곤 한다. [그림 7]은 우주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대부분 바다와 같은 푸른빛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스페이스룩은 90년대 초반의 우주인이나 우주전사를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스타일을 거쳐 자연미와 인간미가 가미⁴³⁾된 디자인으로 정착되어 가는 듯하다[그림 8] 소재로는 라이크라 저지, 고무, 스판덱스, 에나멜, 라텍스 등의 미래적인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으며, 색상은 은색 외에도 검정색과 흰색을 중심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사이버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98 컬렉션에서는 Versace, Prada, Dolce Gabbana등이 자연미가 가미된 Space Look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Chloe의 컬렉션은 흑성이 여러개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은하수를 깔아놓은 듯한 무대에서 환상적인 드레스를 선보였다.

5. 미술과 마법의 신비주의 패션

서양에서 미술은 일찍이 이교도와 연금술사, 마녀 및 마법사와 결부되어 있었다⁴⁴⁾. 그러나 오늘날 미술은 종교적 시스템의 핵심인 정교한 의식의 일부로서라기 보다는 오락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오락적 행위로서의 미술을 행하는 미술사의 이미지는 과거의 악마숭배자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난 모던한 스타일로 정착된 듯하다. [그림 9]는 현대적 미술사의 이미지를 도입한 패션 광고다.

마법사의 특징에 대해서는 일관된 보고가 없다.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으로, 또다른 곳에서는 남성으로 간주되며, 호리호리한 체구나 뚱뚱한 모습으로



[그림 9] Collezioni 광고(Collezioni No. 42, pp. 287)



[그림 10] Tsumori Chisato(Collezioni No. 35, pp. 273)

나타난다⁶⁾. 여자 마법사인 마녀는 유럽 민담에 나오는 추하고 심술궂은 노파로서 종종 마귀나 죽은 자들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었다. 때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서큐버스(succubus)는 잠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어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게 하고 남자를 탈진시켜버리는 마녀라고 한다. 대부분의 전승에서는 마녀가 다산(多産)을 가로막는 존재로 나오지만 마녀를 원시적 자연 여신의 한 잔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마녀의 이미지 또한 종종 패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이미 1983년에 '마녀들(Witches)' 이란 S/S 콜렉션을 선보인 바 있다⁶⁾. 최근 콜렉션에서는 마법사 또는 마녀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악마주의적인 이미지 외에 섹시함, 코믹함, 여신과 같은 신비함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그림 10]의 소재 상의 별자리 프린트는 점성술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IV. 결 론

사전적 정의에 따라 볼 때 넓은 의미에서의 신비

주의는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신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신비주의는 초월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실천 체계를 의미하는 신비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었다.

문화현상으로서의 신비주의는 그 대표적인 특성에 따라 종교적 신비주의, 동양사상의 신비주의,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 마술과 마법의 신비주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주화의 틀을 다시 패션에 적용하여 신비주의 패션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종교적 신비주의는 다시 '원시종교의 신비주의'와 '기독교의 신비주의'로 나뉘어져 총 다섯 개의 범주로 정리되었다.

우선 원시종교의 신비주의 패션으로는 머리털, 뼈, 동식물 등의 자연물을 직접 부착하여 정령의 실존을 염원한 원시주의 양식의 에스닉 또는 이콜로지 패션과 고대 이집트 의복의 상징성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기독교의 신비주의에는 화려한 색채와 빛의 신비성을 표현한 디자인, 내오 히피의 싸이키델릭 패션, 성직자나 청교도들의 복식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디자인 그리고 '선과 악'의 개념을 소재로 한 작품들

이 있었다.

동양사상의 신비주의 패션은 형식의 완전성과 규정성의 부정이라는 선사상의 표현으로 대표되었다. 이는 형식의 완전성이나 규정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내적 진리로부터 소원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적 형식의 초월은 탈구성, 은폐와 노출의 반복, 위치의 전위, 디테일의 변용을 통해 새로운 복식 조형을 이루어 내었다.

우주에 대한 신비주의는 신화적 관념에 따라 우주를 바다의 이미지와 접목시켜 표현한 디자인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UFO나 우주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스페이스룩으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술과 마법의 신비주의는 패션에서 마술사나 마법사 또는 마녀 이미지의 차용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신비주의 패션은 문화의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세기말적 불안감과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회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불안과 회의를 표현이 아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의지는 이제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 사회에 밝은 빛을 행사할 수 있는 패션으로 전향될 것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 1) 『Marie Claire』, 1997년 6월호, 77-82./ 경향신문, 1997년 4월 11일자/ 경향신문, 1997년 4월 12일자/ 경향신문, 1998년 6월 12일자/ 국민일보, 1997년 5월 24일자/ 국민일보, 1997년 5월 26일자/ 국민일보, 1998년 4월 16일자/ 대한매일, 1997년 7월 19일자/ 대한매일, 1997년 10월 2일자/ 동아일보, 1995년 3월 22일자/ 동아일보, 1995년 5월 16일자/ 동아일보, 1997년 11월 15일자/ 서울경제신문, 1996년 4월 22일자/ 조선일보, 1997년 3월 18일자/ 조선일보, 1997년 5월 6일자/ 조선일보 1997년 7월 30일자/ 조선일보, 1997년 11월 6일자/ 조선일보 1998년 3월 12일자/ 중앙일보, 1996년 11월 29일자/ 중앙일보, 1998년 4월 5일자/ 한겨레신문, 1998년 6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0월 20일자/ 한국일보, 1995년 5월 6일자/ 한국일보, 1996년 5월 26일자/ 한국일보, 1997년 12월 13일자/ 한국일보, 1997년 3월 16일자.
- 2) 『Elle』, 1998년 3월호, p. 129./ 『Elle』, 1998년 4월호, p. 73.
- 3) 본 연구에서는 브리태니커에 사용된 용어에 따라 미스티시즘은 '신비주의'로, 오컬티즘은 '신비술'로 구분할 것이다.
- 4)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Third College ed.(Prentice Hall, 1994).
- 5) 『대세계백과사전』, 제 4권 (서울: 태극출판사, 1994), p. 83./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 제 19권 (서울: 동아출판사, 1983), p. 76./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제 17권 (서울: 두산동아, 1996), p. 25.
- 6)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제 16권 (서울: 동서문화사, 1996), p. 9434./ 『학원 세계대백과사전』제 18권 (서울: 학원출판공사, 1993), pp. 625.
- 7)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Vol. 13 (서울: 브리태니커·동아일보 공동출판, 1993), p. 561.
- 8) Walter, T. Stace, Teachings of the Mystics, 강건기·정륜 (역), 『신비사상』(서울: 동녘나라, 1995), pp. 21.
- 9)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London: Macmillan, 1969)를 Robert S. Ellwood, Jr., Mysticism and Religion, 서창원(역), 『신비주의와 종교』(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 40에서 재인용.
- 10) Robert S. Ellwood, Jr., Mysticism and Religion, 서창원(역), 『신비주의와 종교』(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p. xi.
- 11) W. T. Stace, op. cit., 33-37.
- 12)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Third College Ed.(Prentice Hall, 1994).
- 13) Britannica『Macropedia Knowledge in Depth』, Vol. 25(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0), 75-98.
- 14) Ronald A. Wells, History through the Eyes of Faith -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한인철 (역),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서울: 한국기독교대학협의회·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191-196.
- 15) Ibid., 205-217.
- 16) 동아일보, 1995년 3월 22일자/ '오움'은 '우주의 창

- 조 유지 파괴'를 뜻하는 힌두어가 어원이며, 이 종교 단체의 주신(主神)은 파괴의 신인 힌두교의 '시바'다. '절대 자유' 상태인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요가와 티베트의 밀교의식을 도입한 수행을 쌓을 것과 출가(出家)시 모든 재산을 오움진리교에 기증하고 단체 생활을 할 것을 강요해 왔다.
- 17) 중앙일보, 1996년 11월 29일자/ 전생치료법은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인간의 뇌 속에는 '집단무의식'이라 불리는 기억 창고가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잠재의식 속에 무궁무진하게 살아 숨쉬는 각종 기억·비밀의 문을 최면이란 열쇠로 열어젖히는 작업이다.
- 18) 『Marie Claire』, 1997년 6월호, p. 80.
- 19) 문혜신, "현대 섬유미술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91, 11-12.
- 20) 하지수,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21) 정홍숙, "고대 이집트복식에 나타난 상징성: Tutankhamen왕조를 중심으로", 복식, 1982, 6, 124-126.
- 22) 『Vogue』, 1997년 6월호, p. 96.
- 23) apron형의 장식 panel로, 형겅에 보석이나 여러 가지 색깔의 유리상감(유리가루를 녹여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세공하여 입체감이 나게 만든다.
- 24) Jan Bialostocki, "Skizze einer Geschichte der beabsichtigten und der interpretierenden Ikonographie", Ekkehard Kaemmerling (Ed.), Ikonographie und Ikonologie: Theorien—Entwicklung—Probleme, 홍진경 (역), "도상학의 역사", 이한순 외 4인 (역),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이론—전개—문제점』(서울: 사계절, 1997), 22-24.
- 25) 김태연, op. cit., pp. i./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의 일면으로 등장한 신중세론은 중세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지던 기본 가정과 전제 조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봄으로써 이들을 재공식화하려는 경향이다. 중세 문화의 단편적인 측면만을 봄으로써 획일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중세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한다.
- 26) Ibid., p. 31.
- 27) Ibid., p. 43.
- 28) Ibid., p. 63.
- 29) 『Britannica World Encycloepadia』, Vol. 15 (서울: 브리태니커·동아일보 공동 출판, 1993), p. 528.
- 30) Mike Brake, The Sociology of Youth Culture and Youth Subcultures(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80), p. 6를 참고한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1987, 11(2), p. 77에 따른 정의./ 노우스티시즘 : 그리스어로 'Gnosis'란 '지식'을 뜻함. 이 신비적 지식주의란 초기 기독교 사상의 한 원리로서 진실을 토대로 정신적인 진리에만 가치를 두어야 구제된다고 믿는 주의다. 여기서 초월적이며 정신적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 31) Ibid., p. 78.
- 32) 김태연, op. cit., p. 26.
- 33) 권유진, "오리엔탈리즘의 패션체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8, pp. 11.
- 34)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박용숙 (역), 『예술의 의미』(서울: 문예출판사, 1994), p. 122.
- 35) 강건기, "禪의 향기", 『우주의 신비와 생활의 조화』(전주: 전북대학교 사회교육원, 1996), p. 33.
- 36) W. T. Stace, op. cit., 105-108.
- 37) 『Fashion Today』, 1996년 4월호, p. 90.
- 38) W. T. Stace, op. cit., 158-159./ 도교의 신비 관념인 도(道)는 텅비어 있어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만물의 근원이다. 따라서 '신(神)'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무(無)로부터 나온 것이다.
- 39) J. Blackstone, et al., Zen, 유승은 (역), 『선 :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남양: 이두, 1995), p. 37.
- 40) Ibid., p. 49.
- 41) 『Marie Claire』, 1998년 7월호, p. 152.
- 42) Felix Pirani, The Universe, 김영신 (역), 『우주: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가』(남양: 이두, 1995), p. 25.
- 43) 『Elle』, 1998년 5월호, p. 34-35.
- 44) 『Britannica World Encycloepadia』, Vol. 17 (서울: 브리태니커·동아일보 공동 출판, 1993), p. 85.
- 45) 『Britannica World Encycloepadia』, Vol. 13 (서울: 브리태니커·동아일보 공동 출판, 1993), p. 561.
- 46) 염혜정,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37, 1998, p. 75.